

여성어의 수용적 태도*

김홍자(홍익대)

1. 머리말

여성어 연구는 생물학적 개념의 성별언어를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고 여성과 남성간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려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성이란 요인은 70-80년대 페미니즘 운동을 기반으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일차적으로 밝혀내고, 제시된 차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평가되는가를 연구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성적 특성의 문화들은 문화 내적 동질성이나 이질적 문화간의 이질성을 통해서만 통각되므로 성혼합적 특성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력을 피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 내에서 재구성될 수 있는 사회적 지표를 마련할 수 있다. 한편, 사회 문화적 변수로서의 행동이나 외부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여성언어¹⁾를 사용함으로써 수용의 영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수용적인 표현들은 상대방을 대화에 협력적이게 하며 상대방을 편안하게 하고 상대방이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독어의 사회적 관계와 친분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호칭, 종결어미, 여성의 직업명칭 등에서 나타나는 성불평등 현상은 문법성과 자연성에서 존재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체면의 개념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 이 글의 인용문들은 UNESCO의 지원을 받아 '독일여성'에 관해 연구를 하는 유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발췌한 것임을 밝히며 아울러 이 글을 읽고 기술적인 표현들을 고치도록 조언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본 글에서는 여성어를 여성 차별어와 동의어로 사용할 것이다. 여성어이든 여성 지칭어이든 여성 차별어가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을 열등하다거나 폄시하거나 혐오감이 들게하는 언어를 지칭한다면, 여기게 직접 관련되는 언어항목은 언어와 성차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여성어는 여성발화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것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와 언어생활에서 진정한 의미의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산술적 의미에서의 평등이 아니라, 분배적 의미에서의 평등이 이루어진다면 여성어의 개념은 필요없거나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때는 순수 언어학적 의미에서 여성어는 여성 발화어가 될 것이다.

있으며 대외적인 자아상, 자존심 등으로 이해되는 수용적 태도를 필자는 남성언어와 여성언어라는 두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여성언어의 표현 법에도 수용과 자아실현의 두 관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는 사회구조나 관계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인간언어로 또 다른 존재 표현법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발화 행위의 형태를 남성과 여성의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며, 거리감에 따른 존재나 공손표현을 나타내는 것 이외에 여성언어에서 볼 수 있는 수용적 표현에 대해서 살펴 보려한다. 인간의 자아를 자아의 자발적인 부분과 자아의 사회화된 부분으로 구분할 때 후자가 자신의 정체성이 되며 자기로서 체험된 내면적 자기 일치가 이루어지는 교점으로서 타인에 의한 피인정과 자신으로부터의 자기인정Selbstidentifikation이 상호 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날 때, 이렇게 하여 획득한 정체성은 여성은 여성으로 남성은 남성으로서 언어행위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2. 남녀성의 담화구조

여성어는 여성화자가 명제 내용의 사실성의 인정여부가 주가 되는 <의사 표시 내용의 평가>에 해당하는 인지적 관점의 접근과 <대화참여자의 관여>적 층위에서 수락을 하지 못하고 정서적 관점의 거절이나 반항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수행 방법이 이에 속한다.

Geschlechtsspezifikation

(bekannt) h/s (korrekt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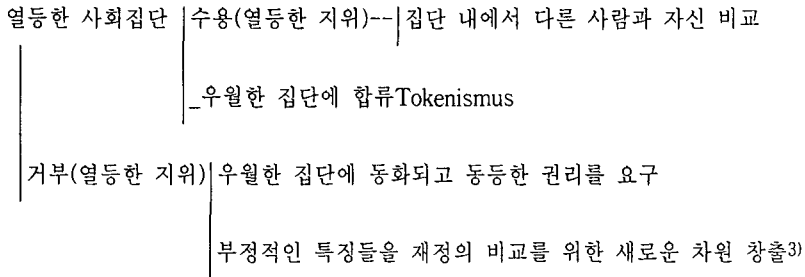
성분화적인 명칭을 사용할 때 화자가 청자에게 잘 알려져 있거나(h표시) 청자에게 직접 화자가 알려져 있다(s표시)는 점을 지시한다. 이때 화자에게 어떤 사태가 '고유하게 알려져 있거나' 화자가 다만 '그 순간에만 현존하지 않는' 사태를 지니고 있을 경우 청자는 그가 지금까지의 가정과 기대나 태도가 수정되어야 하며, 더군다나 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해서 화자가 이러한 사태를 통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질[수정]은 화자의 정서적 관점에서 대개 청자의 설득을 의도로 하는 수용적 방법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부가의문문에서도 상대방의 설득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명제 내용에 대한 성분화적 동기는 명제 내용에 대한 여성의 태도에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 자체나 상대방과의 인간관계 및 심리적 관계로 발전하여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성언어의 성분화적 특징은 성중립적 명칭과는 달리 <알려지지 않은 근거>를 지시하는 선행 정보에 대한 단순 강조, 시간 벌기를 제시하고 있다.

성 남성 || → 언어행위적 구분
 여성 || ↓
 사회문화적 가치평가

이는 남성들이 대화를 방해한다거나 시간벌기를 통하여 여성의 권리나 지위를 박탈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성 사이 대화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말할 권리, 특히 여성이 그 수순을 끝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바꾸어 말하면, 여성이 남성과 대화에서 거의 중복되기를 하지 않는 사실은 여성이 남성의 대화의 수순을 위배하고자 하기보다는 그가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편을 암시한다. 대화에서 이렇게 정상적인 수순지키기를 위배함으로써 다음 화자는 침묵을 지키는 경향이 짙다. 대부분 방해하기가 Zimmaman과 West(1975)의 자료에 따르면, 이성간 대화의 경우, 남성에게 의해 저질러짐으로써 침묵을 지키게 되는 화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기대하던 대화가 중단되기 때문에, 여성화자는 대화가 중단되기 이후나 이전의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you know(있잖아요) sort of(대개), just(단지) 등의 형태를 사용하여 수순 지키기의 작동 불량을 고쳐 대화가 계속되도록 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는 여성화자가 사용하는 정중한 부가의문문이나 비격식적 부가의문문 등이 대화 촉진제 역할을 하지만 남성화자의 경우는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양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화 참여자 사이의 관계가 고려된다면 촉진자(facilitator)가 비촉진자(nonfacilitator) 보

다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²⁾ 이러한 연구 결과의 가치는 여성과 공손성(Höflichkeit)과 여성과 열등한 힘없는 언어로의 사회집단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남성화자로부터 방해를 받은 결과로서 남성의 최소반응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성간의 대화에서 남성화자는 그들의 최소반응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들은 단지 휴지 다음, 적절한 순간에 ‘m’이나 ‘ja’를 말하였다. 이는 현재의 여성화자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관심부족을 표시하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 남성이 여성화자에게 ‘거리를 두는 상태’를

2) 대화에서 화자의 ‘성’과 기능으로 본 부가의문문의 분포를 Holmes(1984:54)에 의해 조사된 것을 살펴보면 쉽게 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여성이 실제로 부가의문문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의미유형	부가의문문의 수	
	여성	남성
양태적 의미(Modal meaning): 확신의 정도	18 (35%)	24(61%)
어떤 전제에 대한 화자의 확신성 정도를 나타내는 화자 위주의 부가의문문(재확인, 확인, 동의, 요구)		
감정적 의미(Affective meaning): 청자위주의 부가의문문		
1.촉진(facilitative):화자의 청자에 대한 유대관계나 긍정적 태도표시		
담화에서 촉진적인 화자의 기여	30(59%)	10(25%)
2.부드럽게 진정시키기(softening):청자에 대한 공손함이나 그이 기분에	3(6%)	5(13%)
관심을 표시. 비판, 명령의 압력을 부드럽게 함	51	39

3) 이문제에 관해서는 Tajfel 1981을 참조!

나타냄으로써 여성화자의 주제에 대한 관심부족을 초래한다⁴⁾. 이는 사회문화적 가치 평가로서 여성이 말을 할 때에는 남성이 대화 주제를 통제할 수 있는 여성권리를 부정하기 위해서 방해하기와 지연된 최소 반응을 사용하여 시간벌기를 초래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주제 통제는 대화 참여자들간에 동등하게 공유되어야 하지만 화자가 남성이고 다른 화자가 여성일 때, 남성화자들이 지배하는 경향이 있다. '성' 변수와 전문지식이 함께 지배에 관한 변별적 예측수단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보를 잘 아는 남성화자는 대화와 주제를 통제하는 데 불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힘에 의거한 상호작용Solidarity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정보를 잘 아는 여성화자는 유대관계와 지지에 바탕을 둔 상호작용방식을 선호한다. 최소반응에 관한 연구는 여성이 여성화자가 더욱 많이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지금의 화자에게 청자의 지지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 Sociologists qua sociologists are allowed to have the profane part: sociologists qua persons, along with other persons, retain the scared for their friends, their wives, and themselves. (남편은 sociologists를 대변하는 인물로 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묵시적으로 남성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 Werner F.1981:165)

다음의 질문에 대한 예/아니오 질문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남성의 3배나 부가의문문과 의문문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남성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여성이 무식하다고 여기는 성역할의 충돌을 떠나 질문은 청자로부터 반응을 요구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진술문 형태보다 더욱 강하다. 이것은 여성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능동적 역할로 이끌어 내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상호작용 상황에서 여성의 약함을 반영하고 있지만, 대화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용적 태도의 일환으로 질문의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4) Zimmaman & West 1975, 105쪽에 의거했음.

(2) Frau Kim: Haben Sie noch etwas Billigeres?(DEUSCHE SPRACHE, 2001:96)

【현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 → 질문 → 【다음화자가 스스로 나섬】 → 대답 →
【현화자가 다음 화자를 선택】 → 질문 → 【다음화자가 스스로 나섬】

질문을 함으로써 여성화자는 사회가 만든 성역할과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수순을 자기가 취하는 남성화자들의 '방해하기'를 방지하고 대화 모형의 대칭성을 유지시켜 준다. 남성들의 서열적 Hierarchie 문장구조와 여성들의 비서열적 non-Hierarchie 구조를 보여주는 다음의 예를 보자

(3) 필러: Ginme the wire... Look man I want the wire cutters right now.

(그 철사줘...야. 내가 지금 철사를 자르는 것이 필요하단 말야)

(4) 모니카: Hey y'all let's use these first and then come back and get the rest cuz it's too many of em.(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먼저 쓰고, 다시 와서 나머지 쓰자)

남여성의 인지칭 텍스트 유형의 분포에서도 문화적으로 편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분포의 빈발적 보편성 Frequentalität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남성화자는 명제성분과 현실사이의 일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선편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UNESCO의 자료에 의하면 남성은 여성을 주시해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눈을 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은 몸을 밖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은 몸을 움츠려서 좁히려는 경우가 많다. 남성은 여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여성은 이와 반대로 남성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강하다. 여성은 상대방에게 웃음을 띠는 일이 남성에 비해 많고 감정을 얼굴모습으로 드러낸다. 비언어적 힘을 보이는 제스처 같은 행위를 하면 남성은 이에 대하여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무시해 버리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거나, 또는 이를 우월한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적인 접근으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여성언어는 부분텍스트(심판하는)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대시

점의 상황에 대한 평가로서 서평에 속한다. 이는 특히 요청의 행위시에 적게 요구함으로써 요청의 강도를 낮추고 따라서 상대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상대가 승낙할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수용적 태도이다. 생활습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상이하며 문화적, 지역적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찾아 볼 수 있는 수용의 보편적 현상은 대인관계에서 공손을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인정 받고자하는 적극적 욕구와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소극적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대인관계를 원만히 이루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기본적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 그들은 다른 화자의 언급한 바를 무너뜨리기보다 첨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상호작용에서 여성들의 협조적이고 단정적인 방식이 여성화자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독일 여성화자들의 병렬문 사용 선호도와 남성화자들의 종속문⁵⁾ 사용선호도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견해는 종속절을 포함하는 문장이 본질적으로 더 우월성이 없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지만, 종속적인 구성체는 문자 언어의 전형인 반면 병렬적 구성체는 주어의 전형이라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병렬문 제한된 기호 여자들의 언어	종속문 정교한 기호 남자들의 언어
가정		
결과	구어	문어

여성은 문어체 중심의 언어적 표현을 하는 남성과 비교하여 단문을 사용

5) 이러한 유형들 사이의 차이점을 병렬은 각각 절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일련의 주절들을 내포하는 반면, 종속절은 의존하는 하나 이상의 또는 더 많은 종속절을 가진 한 개의 주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절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들은 종속적 문체에서는 명백해지나 병렬적 문체에서는 함축적(implicit)으로 남아있다. 병렬문 선호도를 편찬하고 종속문을 선호하는 것을 칭찬하는 이유는 병렬문이 표면구조의 논리적 연결부족으로 인한 '원시적'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김희숙(1998)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ich-진술문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5) 여성적 표현: ich finde...: könnten wir nicht wieder einmal...

남성적 표현: das ist halt so...: man muss dringend mal wieder...

Linke, 1991:320)

문자언어에 대한 여성들의 어려움은 동정적인 이해를 구하는 주제라기 보다 남성들 기지의 냉소적 대상이었다고 보여진다. 여성적 표현 유형과 남성적 표현 유형간의 특성을 통해 남성과 여성간의 언어적 차이는 생물학적 입장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회문화적 역할 등에 따라 상이하게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언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손현상은 언어적으로 축소형을 사용하는 데서 언어유연성과 더불어 대화자 상호간에 끈끈한 활력소가 된다.

(6) (한국어) : 과자 조금만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잠시만 빌려주세요/조금 비켜주세요.

(독일어) : Könntest du mal eben 'n bißchen rücken? (조금만 비켜줄래?)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남녀성 화자의 인지적 수행방법은 결합형태로 진술하는 경우이다. (7)에서는 발화 및 화행을 대상으로 인지적 관점의 중립적 수행 방법이 이루어졌다. 이는 남성중심의 조어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행동 또는 활동은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유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구성될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유형의 행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더라도 화자의 행동을 통한 바램이나 청유, 거리 두기를 통해 또 다른 화자 자신에게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것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명제내용이 화자의 판단이나 평가가 인지 태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재해석되어 청자에게 전달된다. 또한 현실과 바램 사이의 <모순>을 연결함으로써 중립적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7) Dem Zulassungsausschuß gehören an: das Rektor als Vorsitzendes oder

das Prorektor für die Lehre als dessen Stellvertreter.

- zwei Professoren
- ein Angehöriges des wissenschaftlichen Dienstes
- ein Student
- das Leiter der studentischen Abteilung(Thurmain,1989:82)

음성학적 측면에서 여성들은 사회적 규범과 기대어 상응하는 표준어 중심적 또는 방언적 색채를 갖는 발음에 더욱더 근접하게 적응하려는 경향을 갖는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하위기본주파수대 영역을 차지하고 여성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상위기본 주파수대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물학적 특성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Schlobinski(1987)의 연구에서도 Berlin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wissen의 인칭변화 과정 중 표준어 중심으로 발음하는 반면에 남성들은 ich weeßte 및 weeß nicht로서 [e:]로 단모음화하여 방언적 특성을 제시하는 경향을 높게 나타내었다. 독일어에서 형태-통사론적으로 소위 주 어휘범주에 속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어간들은 대개 1음절이거나 2음절인 경우 두 번째 음절은 대개 그 핵Nukleu이 Schwa 모음이거나 성절성 공명음silbischer Sonorant에 해당하는데 Schwa를 하나의 독립적인 형태소로 생각한다면 현대독일어에서 명사 끝에 나오는 Schwa가 여성을 나타내는 형태적 maker라는 주장과 관련된다.6)

	Parse-Segment	Level	voice	IO-Max-Voi-Obst	Align-σ	IO-Dep	IO-Max-sonst	Align-R
ma:l ma:ln							**	
ma:l ma:lən		*!					*	
ma:lə ma:ləin					*!			*

6) Paradigma Maler-Malerin에서 Input가 /ma:lə/- /ma:lə-in/인 경우만을 예를 들었지만, 여성 명사는 2개 이상의 기저형태소를 갖기 때문에 언어경제성에도 위반되어 어간말음에서 약화현상을 일으킨다.

3. 수용적 태도

3.1 체면의 존중

대외적인 자기 이미지, 자기 존중으로 이해되는 체면을 존중하는 언어회화 진행은 그 지엽적인 특징으로 한정된다. 체면존중 방법에는 체면을 인정하는 적극적 존중방법과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소극적 존중 방법이 있다. 회화 '진행의 선구조화'란 초기의 선발화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시작부분의 대화가 여성명칭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대화진행을 탁월하게 만들 수도 있고 훨씬 더 관심 있는 지엽적 조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서 여성 화자는 다가올 대화 전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만일 여성화자가 그의 파트너에게 어떠한 반응도 강요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반응을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화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성언어에 있기 때문에 대화 조정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자 A가 그의 파트너 B에게 질문을 했을 때 B는 그 질문에 대답할 자유가 있다. 뭔가 완전히 다른 말을 할 수도 혹은 침묵할 수도 있다. 그러나 B는 선행자의 발언에서 그가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침묵은 '거절'로서 답을 대신할 수 있다. 어떠한 대답을 할 선택권은 대화 협력의 원칙과 결부된 선택권의 사회적 평가와 연결되어 있다. 그것은 선행 대화의 가정이나 확정을 최대한 수용하고 대화진행과 관련하여 서로 협력하는 반응이다.

(8) A: Er ist ziemlich klein

B(여성): Ich glaube, ich habe das vergessen: es scheint mir, er ist ein Chauvinist.

A: Aber nein! Er ist nicht viel dick geworden.(O.Käge 1983:301)

실제로 우리는 문맥을 통해 아주 특별한 중립적 협력 정도를 보여준다. 개별 요소가 맥락 환경의 한정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형식의 기능 부담량은 그만큼 적어지므로 한정적 맥락 요소들은 주로 인칭대명사, 관사,

전치사, 조동사와 같은 기능어인데, 여성어는 전체나 개별적인 발화에서 전달되는 핵심 정보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화자의 입장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남성 중심적 사고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남성 기능 부담량이 높은 낱말은 일반적으로 약센트가 있을 확률도 높으며, 자신의 잉여적 환경에 대해 운률적 대비를 이루는 정도도 높다.

‘해볼까’라는 형태는 여성화자들의 명시적으로 제안된 행동 내에 화자를 포함시키고 있다. 남성화자들의 경우, 지도자가 통제하기 위하여 매우 강력한 지시형태를 사용하는 서열적인 구조로 집단이 구성되어 있으나, 여성들의 집단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비서열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더욱 지시적일 뿐 만 아니라 딸보다 아들에 대하여 더 그러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언어학적 차이는 다시 사회 조직의 한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9) Erica Jong ist ein weiblicher Henry Miller.

(10) *Johannes Brahms ist eine männliche Clara Schumann.(Hellinger 1990:81)

인간은 자기 이미지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이 지닌 내적 특성에 대하여 이해와 공감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독일어의 문법적 남성표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는 개별의미와는 무관하게 말의 어조가 딱딱해짐과 동시에 대화참여자는 공적인 체면을 지닌 합리적 행위자로서 원만하고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이를 목적으로 타인의 행위를 예측하여 자신의 계획을 수정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부터 그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이르기까지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인간행동과 관련된 특정한 틀 속에서 화자는 상대방의 체면을 감안하여 손상의 위험도가 증가할수록 더욱 남성언어를 이용해서 여성이름을 무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1) Thatcher: Historischer Besuch. Erstmals ein britischer Regierungschef in Israel.

(12) Apropos Navratilova: Sie hat als bisher einziger Tennisspieler mehr als

zehn Millionen Dollar an Preisgeldern eingenommen-egal ob weiblich oder männlich.

(13) Die 16Jährigen Religionslehrin die Höchststrafe verhängt wurde, ist der Jüngste US-Bürger, gegen den diese Strafe seit 1976 verhängt wurde.

(14) Hannah Anendt war unter den politischen Philosophen des 20. Jahrhunderts vielleicht die originellste und interessanteste, aber auch jene, die das meiste Ärgernis erregte.(Hellinger, 1990:84)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는(Regierungschefs/Tennispieler/US Bürger/Philosophen) ‘문맥중립적’ 특징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 표현을 수단으로 한 특별한 화행 특징으로서 문맥에 영향을 끼치는 자질이 며 서법양식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말해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 구조화 하려는 과정에서 표현된 주관화라고 본다.⁷⁾ 상기의 문장들은 여성화자에 의해서 bitte를 첨가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소원 문장으로의 해독 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15) Ich brauche einen Kamm.

(16) Bitte, Ich brauche einen Kamm.

이는 남성적 확실성männlicheSicherheit이나 여성적 불확실성weibliche Unsicherheit이라는 개념으로 남성에게 유리한 평가를 지양하고 청자도 역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화자의 그러한 전제사용으로 하여 금 ‘공통되는 바탕을 전제하라’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진다. 이 경위 에는 화자가 청자의 욕구를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답변으로서 형용사는 charming, adorable, diving 강조부사 는 so, much, ja, doch,의 형태로 사용된다. 주장이나 요구시에 의문형이 있 으며 확증할 때는 약화와 화법동사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음조의 변화를 통해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가정을 환기시킬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체면이 손상되는 행위를 완화시킬 수 있다.

7) 주관화에 대한 설명은 김홍자(2000:123)를 참조.

- (17) a. Das ist nur so eine Idee von mir.
 b. Das ist eine Idee von mir.
- (18) a. Es wäre schön, wenn ihr kommen könnt.
 b. Könnt ihr kommen?
- (19) a. Ist er nicht ein Idiot?
 b. Er ist ein Idiot. (Werlen, 1983:211)

위 문장에서 나타난 a번 문장이 '상대방에 대한 고려'라는 여성적 발화행위의 특징적 자질로 보고 b의 발화행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a의 여성언어가 화자 자신을 낮추고 화자의 소유물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원리로서 겸손한 언어표현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Bußmann (1990)에서는 공손표현을 '대화 참여자간의 사회적 지위 및 거리(친소관계)를 나타내는 문법적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회적 접촉을 가능한 한 장려하는 데에 목적을 지니며 상대에게 이롭게 하거나 상대와의 직접적 접촉을 회피하는데, 다시 말해 그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감을 확대시키는데서 그 효과를 지닌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선묵(1994)에 의하면 친절행위 가운데 '공손행위'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사실을 과장하는 것, 부가의문문을 이용하거나 청자를 대화참가자의 대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성의 언어태도는 이야기하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위의 문장은 대화 상호간에 소유하고 있는 숨겨진 이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강조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데 청자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낮춤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와 청자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방식은 화자가 청자의 욕구를 알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고 있고 이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화해시킬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같은 일에 대해 말할 때에도 정중함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문장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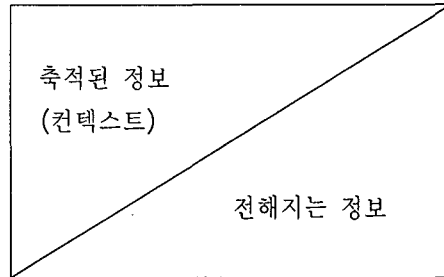
- (20) Sitz mal!(앉아)
 - Setzen Sie sich, bitte?(앉아 주세요?)
 - Könnten Sie sich setzen?(앉아주시겠어요?)

- Könnten Sie sich setzen? (앉으시지 그러세요?)
- Es ist besser für Sie hier zu setzen.(앉으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처음에서 점점 정중함이 늘어난다. 단순한 명령문보다는 의문형, 부정형, 과거형 나아가서는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더욱 정중해진다. 필요해지는 정중함의 수준은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심각한 정도에 따른다고 보인다. 그러면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심각도 Weightiness는 청자와 화자의 심리적 거리 Distance, 청자와 화자의 역학관계, 문화에서 그 행위가 어떻게 생각되고 있는가 Ranking하는 수식으로 제시할 수 있다⁸⁾. 이 모델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청자와 화자의 역학관계(P)를 중시하고 있는 점이다. 즉 어떤 행위가 체면을 손상하는지는 여성화자에서는 그다지 실례가 되지 않는 행위라도 남성화자에서는 매우 무례한 행위로 여겨지는 경우이다. 커뮤니케이션론 학자인 Hall(1983)은 개인간에서 지식, 정보, 경험이 공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컨텍스트양이 많은것’이라고 하며, 반대로 공유되어 있는 정보나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컨텍스트양이 적은 것’이라고 부르고 있다. 컨텍스트의 양이 적은 곳에서는 서로 상대의 ‘헤아림’을 기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서로 같이 하는 정보와 경험, 사고방식이 적기 때문이다. 컨텍스트의 양이 많으면 상대의 헤아림에 기대어 훌륭한 대화를 유지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컨텍스트의 양이 적은 곳에서는 전해지는 정보량이 많은데 비해 컨텍스트의 양이 많은 곳에서는 전해지는 정보량이 적어도 된다는 것이다.

8) 이 세가지 수식을 도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W=D(S, H) + P(H, S) + R$ W: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심각도 D: 청자와 화자의 심리적 거리 P: 청자와 화자의 역학관계 R:문화적인 차이 S: 화자 H: 청자.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의 심각도는 세가지 정도를 합친 것이다.

컨텍스트의 양이 많은 곳(남성의 말적음성)



컨텍스트의 양이 적은 곳(여성의 말말음성)

남성의 말적음성이 이루어지면 메시지는 이미 공유되어 있는 정보,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이해되므로 일일이 말로 해서 전하는 정보는 적어도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여성의 말말음성은 이미 공유되어 있는 정보와 축적된 정보가 적어서 말로 전하는 정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 본질적으로 하찮은 주제를 여성이 지나치게 논의한다는 생각이 아마 여성의 말말음성이라는 신화에 기여해 왔을 것이다. 남성화자와 공유하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여성화자들이 취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서는 침묵은 부정적인 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침묵이란 물리적으로는 아무 것도 없는 시간적 공간이지만 독일사회에서는 침묵으로 상대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면 상대도 또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그럼 여기서 화자가 상대의 침묵을 자신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표명으로 해석하고 있는 사례를 독일의 어떤 회사 내에서의 대화로 살펴보겠다. 안나는 제안을 하는데 다른 사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1) Anne: Nehmen wir alles zusammen, oder?(3.9)

(우리 전부 합쳐볼까?)

Oder wollen Sie den Rest von alles schauen?.(5.9)

(아니면 나머지도 보고)

Dann nehmen sie alles zusammen.

(전체 양을 합쳐볼까?)

침묵이 6초 동안 지속됨으로서 Anne는 자신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받아들인다. 그 증거는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새 의견을 제시하는데 나타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Anne의 침묵에 대한 해석이다. 침묵을 부정적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다.

(22) a. Wir könnten fragen, ob sie einen Mitglieder sein möchten.(3.6) (그들이 회원이 되고 싶은지 물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b. Würden Sie mögen gelten als einen neuen Mitglieder.(11.6) (새 회원이 되고 싶으세요?)

Ich weiß nicht, was ich denke, dafür Sortierung von Leuten die Idee gibt,(1.7)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런걸로 무슨말인지 알건데)

die ich nicht weiß.(잘) 모르겠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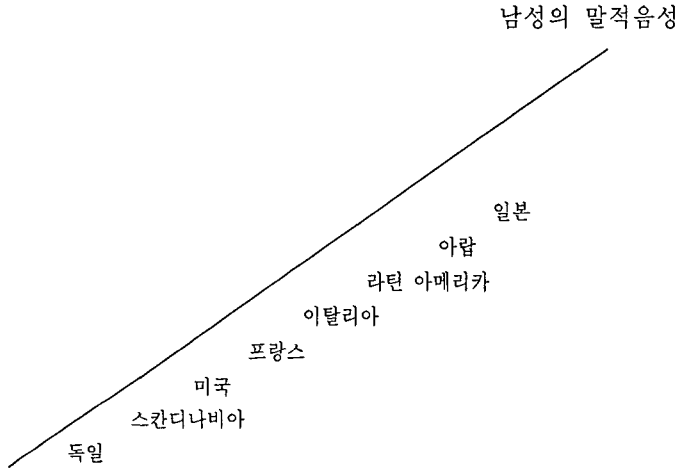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Anne가 11초의 침묵이 계속된 후 부정적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다. '잘 모르겠다'와 같이 말함으로써 자신의 발언을 후퇴시키고 있다. 이 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제안 → 침묵 → 부정적 자기 평가

역으로 표현하면 여성화자의 말 많음성은 긍정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지닌다.

제안 → 말 많음성 → 긍정적 자기 평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말로서 표현해야 한다. 더욱이 독일 사회에서는 상대 의견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싶을 때에는 말을 많이 하여 구체적인 반응을 도출해낼 수 있다. 긍정적인 발화에는 침묵이란 시간적 공간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말 많음성 부류의 나라임을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⁹⁾.



여성의 말많음성

여기서 여성화자와 남성화자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 표는 대화의 스타일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었을 경우 무엇을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리하였으므로 대략적인 경향은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성화자 (축적된 정보가 많다)	여성화자 (축적된 정보가 적다)
말에 의존한 대화	적다	많다
말에 의존하지 않는 대화	많다	적다
침묵	불쾌감을 준다	존경받는다
말의 배경에 있는 의도	주목된다	별로 주목되지 않는다
개인끼리의 약속에 의한 체면손상	구애받는다	구애받는다

9) Azuma,1993(a), 235쪽에 의거했음.

남성화자는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량을 눈치로 파악하는 일이 잦아질 것이며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체면의 손상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은 남성보다 진보적인 언어태도를 나타내는데, 이는 남성이 비표준어적 특징을 고집하는 것과 관련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언어와 관련된 딱딱함이나 남성다움, 난폭성이 여성언어로 나타날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여성이 표준규범지향적이라는 사실에 기초한다. Trömel-Plötz(1984:53)의 정의에서도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Wenn Frauen männliche Gebot durchbrechen, wird ihr Reden abgewertet als Geschnatter, Geschwätz und Klatsch. Ihr Reden miteinander stellt anscheinend eine Gefahr für den Mann dar....”

한편 여성표현이 ‘상대방에 대한 고려’라는 관례적 간접 표현으로서 조건문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대부분 화법조동사 dürfen과 함께 온다. 상대에게 실례가 되는 직접적인 말투가 되지 않도록 표현을 부드럽게 하는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자의 허가를 유보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할하는 일종의 삽입절에 나타냄으로서, 정중하게 완곡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체면을 존중하는 행위를 나타낸다.

(23) Wenn ich da einen Vorschlag mir erlauben darf, vielleicht heben wir uns das noch zehn, fünfzehn Minuten auf.

3.2 공손법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공손한 것은 일반적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언어학자들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점검하기 위하여 무엇이 공손법인지 그리고 이것이 독일 사회에서 어떻게 언어학적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위에서 지적한 체면이라는 개념으로 공손법을 정의할 수 있는데, 이 용어는 Brown과 Levinson(1978)에 의하면 ‘체면을 잃다 to lose face처럼 일상적 용법으로부터 온 것이고 체면

을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분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배려는 청자와 화자사이에 개인의 기본적 필요를 존중함으로써 나타낸다. 이는 부정적 체면(negative face)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을 필요를 느끼는 소극적인 공손형태와 긍정적 체면(positive face)에 의한 환영받고 찬사받을 필요가 있는 적극적 공손법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사회에서 ‘방해해서 매우 미안합니다만 우유가 없군요 내게 조금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처럼 어떤 강요에 대하여 사과를 동반하는 요청으로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 체면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곧 ‘아주 보기 좋은데’ ‘네가 어떻게 느끼는지 난 정말 알아’에서처럼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고 지금까지 한 일과 그들이 느끼는 바를 칭찬과 인정으로 표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긍정적 체면요구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한다. ‘우유줘’처럼 무엇을 무례하게 요구하거나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은 사회에서 불손한 행위이다. 그러면 공손법은 다른 사람들의 체면요구를 만족시키는 언어학적 특성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언어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에서 수행될 수 있다. 대화참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공손법은 대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가능한 한 장려하는 데에 목적을 지니며 상대를 이롭게 할 수도 있으며 상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하는 데에 공손한 효과를 지니게 된다.

(24) Wenn ich das sagen darf, könnt ihr ihm diese Blatt mal schicken.

위의 예문에서처럼 긍정적인 공손은 화행의 힘을 강조할 수 있어서 머뭇거림으로 확신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 대부분은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체면요구에 주의를 표명할 때, 감정적인 의미를 표현하는데 양태(modal)를 사용하며 따라서 이것이 공손성 유표로서 작용한다. 여성에게 말할 경우, 여성은 더욱 많이 여성의 긍정적인 체면 요구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소극적 공손법을 사용하여 청자의 욕구를 보상해 주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시도는 부정어 및 가능성 표시어를 지니는 간접적인 요청 및 접속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청자의 욕구를 보상해 주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담의 실제적인 강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에는 ja, mal, eben, schon, wohl, nicht sehr viel 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여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는 강화시키는 조사류를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사실 남성에게 여성이 말할 때 더 많이 이를 사용하였다.

strengtheners	weakeners	Summe
여성이 남성에게 말하는 경우 35.7	24.4	60.2
남성이 여성에게 말하는 경우 24.1	33.1	57.2

방해에 대하여 사과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전략적 부사들은 부정적 공손성이 사회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약화시키는 조사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따라서 이 사회에서 조사류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공손성의 한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이면 서로 불일치하거나 무시할 때도 여성들은 서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남성이 힘에 근거한 상호작용의 방식을 추구하나 여성은 유대관계와 지원에 바탕을 둔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즉 여성집단은 유연하였다. 여성들은 감정과 인간관계의 관심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을 개발해내었다. 공손법은 '성'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의 또 다른 차원이다. 감사합니다vielen Dank의 공손한 언어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를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사용하는 아이들에게서 발견된 의미있는 하나의 차이는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더 자발적으로 인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손법은 요청의 화행에 관련된 차원이다. 내생각에Ich glaube 같은 양태표현의 중요한 기능은 주관적인 불확실성이나 정중성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단언의 힘을 머뭇머뭇 누그러뜨리고 청자의 체면요구를 고려함으로써 화자들은 그들의 말을 더욱 공손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태표현은 부정적인 감정의 발화 힘을 완화

시킨다. 소녀들이 소년들보다 ‘내생각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소녀들은 비단정적으로 혼련하게 만드는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Kattein (1979)에 의하면 서법은 일정한 동사어미에 기대어 나타나는, 이를테면 독일어의 직설법, 접속법, 명령법과 같은 ‘문법적 형태’를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양태는 앞의 서법형태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상의 크기 *semantische Größe*인데 그러한 의미는 서법 아닌 형태적 크기, 이를테면 양태부사, 양태동사, 어순, 어조 등에 기대어서도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철학적 양태란 앞서 살펴본, Kant 등에 의해 체계가 잡힌 가장 일반적인 부류의 것으로서 가능성과 불가능성, 존재와 비존재, 필연성과 우연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언어적 양태는, 이를테면 시간과 같이, 언어의 구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미부류, 곧 의미범주인 것이다. Kattein은 의미상의 크기와 형태상의 크기는 1:1로 대응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하나의 서법형태가 둘 또는 그 이상의 양태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철학적 양태와 언어적 양태는 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후자가 전자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법에 기대어 볼 때 어조나 양태부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화자의 수용적 태도는 여성들의 완화된 표현을 구사하는 비판적인 의견과는 상이하다. 그러므로 남성과의 대화에서 드러나는 언어태도, 여성을 표현하는 지칭의 차별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경청되어 질 때, 언어와 성, 언어와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했을 때, 여성은 사회 문화적 지위의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지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 품위’를 가져다주는 공손한 수용적 태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풍부한 표현력이나 의미의 훼손, 공손표현과 같은 화행을 통해서 드러난다. 여성이 사용하는 여성다운 언어란 첫째, 솔직하고 풍부한 감정표현 및 과장된 감정의 화행을 자주 드러낸다. 이것은 ‘부드럽고 고상하고 세련됨’이 여성의 평가 기준이 됨과 동시에 여성이 추구하는 미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언어에 있어서도 여성은 좀더 공손하고 정확하며 정중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사회 문화적, 인지적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둘째, 의미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언어는 의미적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남성위주의 사회구조가 언어에도 투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셋째, 자기의

식self consciousness을 주변으로부터 끌어내기를 원하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훌륭하고 세련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여성화자가 의사소통에서 대화 참여자들로 하여금 적절한 분위기를 갖도록 상대방의 발화가 전달하는 명제내용에 대한 관심, 강조, 놀람, 명세화 요구등을 통하여 수용적 태도가 드러난다. 여성어를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적 의미 화행에 '겸양'의도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25) Du kannst mal das Fenster schließen.

(26) Setzen Sie sich bitte!

여성은 ICH의 사용을 피하고 더 정중하게 예의바른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을 드러낸다.

(27) Man könnte sagen, daß...

Es wäre schön, wenn ihr kommen könntet.

Es scheint, daß...(S.Trömel-Plötz,1984:60)

위의 문장은 대화 상호간에 소유하고 있는 숨겨진 이면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강조함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데 청자를 편안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낮춤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부탁에 의한 체면손상행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한 방식은 화자가 청자의 욕구를 알고 있으며 이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욕구를 다른 사람들의 욕구와 화해시킬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28) Ich weiß, daß du Partys nicht ausstehen kannst, aber diese wird wirklich gut- Komm doch!

위 문장의 전략은 청자의 욕구에 대한 화자의 지식 및 관심을 단언하거나 전제하는 것이다. 또 제안 및 약속을 통해 여성화자는 청자가 무엇을 원

하건 그것을 얻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점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청자의 적극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데서 화자의 좋은 의도를 과시할 수 있는 것이다.

(29) Ich komm' mal nächste Woche vorbei.

이 경우 여성 화자는, 청자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주제님께 낙관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화자도 마찬가지로 청자를 도와줄 것이라는 무언의 약속을 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용적태도¹⁰⁾에 대한 주제님은 낙관적인 표현은 협력 전략과 연결된 하나의 공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기능한다.

(30) Ich hoffe, du leihst mir deinen Rasenmäher übers Wochenende.

- Du leihst mir doch deinen Rasenmäher übers Wochenende, oder nicht?

성별어의 생성요인은 장-독립적인 남성과 장-의존적인 여성의 인지구조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인지구조란 일반적으로 문제해결 과정의 개인차를 말한다. 주의 산만한 항목의 장field 속에서 어느 특정의 관련된 항목이나 요인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장-독립형field-independence이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장'속에 매입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지각할 수 없는/ 비록 그 전체의 장은 통합된 전체로서 보다 뚜렷이 지각되기는 하지만/ 부분이 전체의 장에 의존해 있는 경우를 장-의존형field-dependence이라 한다. 인간은 각각 장독립이나 장의존 중 어느 한곳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이가 성숙해짐에 따라 장독립의 발달정도는 어린이가 자란 사회와 가

10) Face가 무시되는 경우로서 매우 긴급하거나 절망적인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황(먼거리, 감도가 어려운 통화), 과업중심적인 경우, 화자지위가 강력한 경우, 청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상세한 것은 이선묵(1994)의 '독일어에 나타난 공손형태의 연구' 참조) 예: Gib mir noch eine Woche! (um die Miete zu bezahlen) Hilfe! 사람살려!-그러나 비교적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는 Wenn Sie so nett wären, mir bitte zu helfen!

정의 형태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남성이 보다 장독립적이었다. 장독립의 경향이 우세한 사람은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에게 관심있는 요소와 불필요한 요소를 구분하고 그들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시켜 가면서 상황을 지각하고 인지한다. 또한 자아와 비자아를 엄격히 구분하려는 사고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아실현의 내적인 준거체제에 따라서 주어진 정보와 단서를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장의존적인 사람은 보다 사회지향적이며 심리적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나름대로의 사회적 지위의식을 주변사람으로부터 끌어내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보통 남의 의견과 생각에 보다 공감적이고 민감하여 사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정상적 품위를 중시하며 공손표현의 수용적 태도를 취하는 발생요인이 되기도 한다. 개개의 명제내용이나 화행 상대방의 행위나 태도는 선행발화(a)에 대한 화자의 일치를 요구하는 전략적 태도가 표시되는데 다음과 같이 수용적 태도로 나타난다.

- (31) a. Frau Gruntz spielt das Akkordeon schlecht.(그룬쯔양은 아코디언 연주를 잘하지 못해)
 b. Man kann sagen, Frau Gruntz kann nicht als eine Accordionistin in Bloomington, Indiana erreichen.(아마도 그녀가 인도 블루밍톤에서 까지 유명한 아코디언니스트로 성공한다는 건 불가능할 거야)

이는 여성화자가 a처럼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대신 완곡하며 암시적인 표현행위를 함으로서 협력적 대화를 통하여 대화참여자와의 마찰을 최소한 줄여 대인관계를 유지 강화시키는 목적에서 동사와 더불어 화자의 안정된 심리적인 입장을 표출하기 위해 비판적인 의도를 약화시키는데는 특수한 화행, 이른바 심리상태의 표출Einstellung Bekunden 이 중요하다. Helbig (1990:51)는 심리상태를 표출하는 양태불변화사를 화용론적으로 하위부류화하는 가운데 화자의 심리상태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그 기준으로는 (\pm factiv= 화자가 명제내용을 사실이라고 보는가의 여부), (\pm Subjektbezug=심리상태의 주체가 문장자체의 주어인가의 여부), (\pm Sprecherbezug=심리상태의 주체가 문장을 말하는 화자인가의 여부)를 제시

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즉 아는/인지상태epistemisch, 가설/가정의 상태 doxastisch, 거리/의심을 두는 상태distanz, 감정 상태emotiv, 평가의 입장 valuativ으로 분류한다. 이때 여성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명제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서 앞의 세 종류(인지, 가정, 의심)는 각기 확신 또는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지에 대한 강도에 따라 구분된다. 즉 확실성에서부터 출발하여 잠정적인 불확실 그리고 의심/불신에 이르는 인지상태의 강도에 따라 나뉜 것이고, 뒤의 두 종류(감정, 평가)는 정서 및 평가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의 b에 해당하는 진술 의도를 나타냄으로서 여성화자는 발화 행위를 통하여 청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Helbig(1990)의 인지와 관계된다. 이것은 문법적 범주에서 부가의문문의 형식을 통해 나타난다.

(32) a. Halt Mund! (입닥쳐)

b. Denken Sie, Sie könnten vielleicht niedriger Ihre Stimme einbißchen über hundert Dezibel?(너 목소리가 수백 데시벨 정도일 수 있다는 생각 좀 해봐)

개개의 명제내용이 강력하게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남성언어와 우회적인 진술이나 사회제약적인 이중적 상황에 처한 화행으로으로써의 여성언어가 가능하다. 여성화자가 산출하는 주장의 발화행위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법에 동의하거나 정보를 인정하여 첨가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화자의 감탄의도를 수용하여 청자에게 <공고>, <선언>의 정보를 나타낸다. 이것은 또한 Helbig(1990)의 <감정상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33) Lassen wir uns gehen! (선언, 우리 떠나자)

(34) Oh! so schöner Film! (감탄, 오 이렇게 좋은 영화인줄 몰랐군!)

다음과 같이 여성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이미 알았어야 했던 사실을 과장어휘를 사용함으로써 really, wirklich 화행에 대한 수용적 태도 전략을

취하게 된다.

(35) Sie haben wirklich wunderbaren Garten!(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셨군요)

대화 참여자간의 의견대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날씨와 같은 화제를 사용하여 의견불일치를 부드럽게 하고 동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명목상의 동의와 같은 전략을 쓰는 것도 수용적 태도의 한 방법이다. 혹은 화자와 청자의 체면 위협관계가 너무 적고 또 상호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탁이나 제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낙관적인 표현optimistic expression이 있다.

(36) Ich bin gekommen, ein Cup Mehl zu leihen.(저는 밀가루 한 컵만 빌리려고 왔어요)

(37) Schauen Sie(hier), ich bin sicher dass Sie könnten gern mir Ihre Schreibmaschine leihen.(보세요, 저는 당신이 분명히 타자기를 빌려주리라 확신합니다)

혹은 '우리'의 사용으로 화자와 청자를 행동에 같이 포함시켜 상호 협조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화행을 통해 수용적 태도를 취한다.

(38) Gehen wir zum Abendessen, oder? (자 우리 저녁 먹으러 갈까요?)

(39) Machen wir Pause! (우리 휴식시간 가져요)

'Ja'의 대답을 가정하는 부정의문문의 사용으로 이런 표현은 긍정의문문보다 청자의 욕구와 태도를 서로 알고 있는 것처럼 청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서 수용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40) Möchten Sie jetzt Abend essen?(지금 저녁 먹으실 건가요?)

(41) Nehmen Sie mal etwas Medizin?(약 좀 드시는게 어떠세요?)

명제내용을 전달할 때 직접청자와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과 강세성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 말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 행위의 주된 동기는 정중함에 있기 때문에 수용적 태도로 분류될 수 있다. 정중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일반화하기란 쉽지 않지만 체면 유지 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중하고 공손하게 들리는 것이다. 직접표현보다 간접표현의 요소가 많을수록, 의문문 형태보다 부정의 단순문이 공손도를 높이게 된다.

- (42) Ist es unmöglich dass ich von Ihnen das Auto einen Moment leihen kann? (제가 당신의 차를 잠깐만 빌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43) Darf ich einen Moment Ihres Auto leihen?(제가 당신의 차를 잠깐동안만 빌릴 수 있나요?)

청자에게 부담의 한계를 적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승낙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수용적 태도를 볼 수 있다.

- (44) Ich möchte nur Sie fragen, ob Sie mich einige Papiers verleihen könnten.(당신이 제게 종이 몇장만을 빌려주실 수 있는지요?)

위의 대화에서 möchte는 과거에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청자의 선택권에 이입하겠다는 뜻을 내포하는 수용적 태도이다. Können Sie mir helfen? 가 현재형 können을 사용한 의문문보다 더 수용적 전략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mag, wollen등의 상태동사가 화행의 정중한 태도를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단순시제의 특별 용법중 태도적 과거attitudinal past는 정상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는 문맥에서 현재시제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화자의 자상한 태도가 담긴 수용적 전략이 된다.

- (45) a. Wir wollen in Seoul wohnen.
 b. Wir wohnen in Seoul.

한 사건의 시간의 고정(텍스트내에서)

t1-----t2

(고정)

시간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한국어는 동사의 연결어미(예:-고 나서, -면서, 후에, -전에...)가 주로 쓰이는 반면, 독일어에 있어서는 부사가 중요한 표현수단에 속한다. 어떤 한 문장이 a 다음에 오는 문장 b를 위해 지시점으로 혹은 지시태두리로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은 문장이 어떤 연결어미와 연결되느냐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한 문장이 -면서während혹은 '-다가'와 결합된다면 이 문장은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위해 지시태두리로 작용하며 여기서 지시 보유관계(a포함b)가 성립된다. 이와 같이 지시 보유관계가 성립될수록 청자의 반응에 영향을 끼쳐 여성의 평가나 보충설명 그리고 개인의 의견들은 계속되는 부분사건들의 전 또는 후에 삽입됨으로서 청자에게 친절한 인상을 남기게 됨으로 수용적 태도를 지니게 된다. 과거의 일시성은 과거로부터 미래에 걸친,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는 현재라는 시간은 청자에게 더 부담을 주려는 거부적 태도가 깔려있다. 또한 화용능력 규칙에서 볼때, 화행은 명료의 규칙과 공손의 규칙으로 나타난다. 명료의 규칙은 언어의 정보전달 기능을 규정하는 것인데 이를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Grice(1975:45)는 대화의 규칙을 4가지로 제안한바 있는데, 이 원칙은 대화에 필요한 내용을 진실하고 전후에 맞고 명료하게 말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들 원칙을 어기면 말의 경제성이 없어지며 '동문서답'이나 '횡설수설'이라는 협동규칙을 타하는 표현들이 있다. 그러나 대화는 언제나 내용을 청자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공손한 표현이 사회적 용인성의 표준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전달 내용보다 전달 방법 또는 전달 이유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흥미롭고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도처에 Grice의 대화의 원칙에 어긋나는 동기는 명료의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공손의 규칙을 지켜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Es ist kalt hier'는 대화규칙을 어김으로써 오히려 'Bitte schließen Sie das Fenster'를 암시하는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목소리 크고 공격적인 논쟁은 순남성집단의 말에서 일반적 특성이 다. 소리지르기, 이름부르기, 위협과 모욕은 모두가 남성의 언어적 공격성의 한 부분들이다. 그러나 여성은 언어적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태도가 유쾌하지 않은 것이며 여성에게 그러한 표시는 대화중단을 의미하나 남성에게는 대화의 관습적 구조에 속한 것일 뿐이다.

3.3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여성 [+ 여성] 적 에토스

본 절에서는 여성이 주체화된 일상어에서 여성성은 (+여성)을 공유하는 ‘여성, 아내, 주부, 어머니’ 등의 역할로서 형성되는 주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 각 어휘항에 실려진 독일 사회 문화적 기풍이나 인식을 찾아보고 화용적 의미를 남성주체의 화용의미와 비교하여 이에 함축된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에토스¹¹⁾를 검증해 본다.¹²⁾

(46) Um 6 Uhr abends kommen ihre Freunde und Freundinnen..... Monikas Oma bringt Brote, Käse und einen Geburtstagskuchen. Monika sagt: "Vielen Dank, Oma!"(DEUTSCHE SPRACHE,2001:110)

Oma가 가지는 사회적 에토스는 여성존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타고난 육체의 조건을 중심으로 외모의 아름다움, 화사함, 남성을 중심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부드러움과 친절함 등 외부적 조건이 여성의 평가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여성을 부드러운 심성과 아름다운 외모 등 미덕을 갖추고 남성의 통제 밑에 피동적으로 예속된 대상으로 치부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가정 내에 한정하였다.

11) 에토스(ethos)란 어떤 사회집단의 신념, 습관, 풍습 따위를 형성하는 기풍이나 심정을 의미하는 용언으로서 여성집단에 대한 신념, 습관, 풍습, 등을 형성하는 사회적 기풍이나 인식태도를 여성적 에토스란 용어로 사용했다.

12) (+여성)자질의 어휘수는 특정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따라 명명되는 어휘수와 맞먹는다.

(47) Min-su: Was möchtest du einmal werden?

Peter: Fußballspieler natürlich.....

Min-su: Mein Traumberuf ist Filmschauspieler. (D-SPRACHE.2001:174)

무시당하고 있는 현실속의 여성은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사회적 틀로부터 벗어나 삶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갈망하게 한다. 자아중심적 생활 방식의 변화를 통해 주체성 있는 당당한 자존으로서의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는 능동적 행동양식의 변화를 표출하는 화행은 현재 여성의 결손된 생활 양식과 삶의 좌표를 반영하고 있다. 안마사Masseur와 여자 안마사Masseuse도 사회 제도와 관습에 의해 평가받지 못하는 상당히 격하된 호칭이다. 이는 사회에서의 발화행위에서 여성에 대한 예측적, 폐쇄적, 비화적 화법이 관찰된다. 전문직중에 있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여성에 대한 말하기 방식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감소되나 일반서민의 화행에서는 남성에 준한 호칭법으로 불리워져서 대우법에서도 성차적 변인에 의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대우받는 언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적 요인이 동일한 대상의 경우에도 상대가 여성일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대우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언어 현상은 인류의 진화를 공동 목표로 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측면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의 능력과 공헌은 무시된 채, 여성이 남성의 성적 예측물에 불과한 존재로 인식하는 여성 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라 볼 수 있다.

(48) Müllerin ist Frau eines Müllers, Mühlenbesitzers.

Bäuerin ist Frau eines Bauern

Wirtin ist Frau eines Wirts

Fürstin ist Frau eines Fürsten (Oksaar,1976:73)

이처럼 여성의 경우에만 직업명칭에서 ‘여자’는 남편을 상대어로 갖는, 남성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명사로 지시되어 남자의 고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의 ‘아녀자’란 어휘는 여자를 아이와 동격으로 상정한 것인데, 아내가 되기 전에 여자는 아이와 동격에 불과하다고 보는 여성인식을 나

타내는 것이다. 여성이 사회적 호칭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한 남성의 사회적 직급에 의존하여 명명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폐쇄적이었음을 반영하고 있으며 호칭은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화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인데, 여성에 대한 명칭이 남성의 사회적 직급에 의존한다는 사실과 이 이름이 남성들에 의해 주어졌다는 사실은 아내라는 말조차 남성 의존적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어휘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의도하는 바를 선별적으로 표현하고 강한 표현을 기피하는 대신에 약화된 형태를 이용한다. '-in'과 'frau'로 인한 신조어 새로운 대명사 규칙들 Splitting이 이에 상응한다. 간호사 Krankenschwester도 남성을 지칭할 경우 Schwester에 상응하는 남성형 Bruder를 사용해 Krankenbruder라 하는 것이 대칭적임에도 불구하고 Krankenpfleger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시켜 상대적으로 여성명사를 약화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형에서 남성형을 만드는 것은 남성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여성형을 기준으로 남성형을 만들 수 없다는 여성을 2차적이고 약한 존재로 여기는 남성우위의 사상에 의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 본래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여성 주도적이었던 직업의 명칭이 남성 직업종사자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여성직업의 변변치 못함과 결부되어 있다. 이것은 기존의 명칭과 변화된 명칭의 의미를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다. 이전의 Kindergärtner은 Kindertante와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유치원 보모'를 뜻하지만 새로운 명칭인 Erzieher는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좀더 평가 절상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예전의 Kindergärtnerin이 그 대상면에서 가르치지 보다는 돌본다는 의미가 더 강했다면 Erzieher는 '교육자'로서 돌본다는 의미가 배제되어 가르치고 교육한다는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다¹³⁾. 대부분의 -in형태는 복잡한 이중접사화를 나타냄으로서 여성형이 기본형으로 사용하는 남성명사가 대개는 이미 다른 동사나 명사의 기본어에서 유도된 형태이다¹⁴⁾. 이것은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대

13) Duden-wörterbuch 1981, 1465, 752쪽 의거했음.

14) 기본어에서 동일하게 남성형과 여성형이 파생된 것이 아니라 여성형은 기본어와 남성형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서야 비로소 형성된다. 예:schneiden-Schneider-Schneid-er-in, fliegen-Flieger-Flieg-er-in, malen-Maler-Mal-er-in, Funktion-

부분이 여성들로 구성된 직업이어도 사회적으로 승인된 직업은 남성형이 통용된다¹⁵⁾.

한편 호칭의 사용범위가 축소되어 어렵지 않게 남을 도와주는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으로 보조적인 역할만을 강조하는 여성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사용되는 문맥에서 이들이 함의하는 의미는 양성의 상징체계의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여성의 일은 보조적이고 부드러움을 요구하는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아름다움’이란 어휘의 사용빈도가 가장 많다. 그 의미는 자아 성찰의 내면적 아름다움보다 남성 의존적 자유나 구속됨을 선언한다는 언어 수반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사회구속으로부터의 벗어나고 싶은 축소의미의 상징구조를 형성, 여성에 대한 사회 문화적 구속을 반영한다.

- (49) Sekretärin ist Angestellte, die zur Abwicklung der Korrespondenz u. Erledigung technisch-organisatorischer Aufgaben zur Verfügung steht.
(Duden Wörterbuch,1984:2372)

Sekretär의 사전적 정의는 ‘조직의 지도적 담당자’라는 정당의 서기, 즉 당사기장,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Sekretärin에는 단순히 ‘여비서’라는 의미적 축소현상을 가져왔다. 따라서 여성이 독일 사회에서 직업, 지위를 가지는 것은 현실에서 유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한 여성을 가리키는 ‘-in’라는 표지를 가지고 유표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역설적이지만 어떤 어휘장에 남성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 남성형이 존재하게 할만큼 여성어의 화용론적 지위가 확고해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성 칭호는 독일의 생활방식과 문화속에서 살아있는 전형적인 우리 여성들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인간적 자아의 실현을 위해 사회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의 욕망에 갈등을 주는 유일한 속성으로 통념화 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을 통한 자아실현의 욕망

Funktionär-Funktion-är-in, Politik-Politik-er-in, Wissenschaft- Wissenschaftler-Wissenschaft-ler-in.

15) Schoenthal 1985, S.151. 예를 들어 Damenschnirderin(여성복재단사)

을 은폐시켜 인간으로서의 불평등과 억압의 조건을 합리화하는 대화 방식이라 우려된다. 이러한 사회 심리적인 요인들이 모성적 에토스를 형성하여 직업적 호칭에서 여성을 표출하는 상징질서로 사용되어 느낌이나 부드러움 같은 감성적 성향이 공유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성) 주체를 규정하는데 사용된 어휘는 '부드러움' '아름다움' '사랑' '협력'이었고 그 사회의 부정적 가치로 구성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다.

4. 맺음말

이상과 같이 남녀성의 담화구조를 살펴보고, 여성화자의 체면존중이나 공손법을 통해서 어떠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법에는 동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를 인정하여 받아들여도록 하는 방법과 다른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남성과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를 비교해 볼 때 여성다운 수용적 태도의 특징은 첫째, 솔직하고 풍부한 감정표현 및 '부드럽고 고상하고 세련됨'이 여성적 에토스가 된다. 둘째, 여성의 언어는 남성보다 공손하다는 보편적 특징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존재로서의 변이형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기의 의사를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여성언어가 화자 자신을 낮추고 화자의 소유물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원리로서 겸손한 언어표현의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이런 언어상황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 심리적인 기본요소인 언어가 특히 여성에게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언어가 여성의 기본적인 행실이나 가르침의 하나라고 강조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여성어의 개념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이 발화하는 언어와 남성이 발화하는 언어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사회적 계급이나 위치의 차원에서 여성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전개된 것이다. 여성이 사회 구성체의 한 일원으로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능동적인 주체로 활동하기도 하고, 수동적인 객체로 등장하기도 한다. 한 사회가 여성을 객체로 대할 때, 그 속에는 사회적 위치나 가치관이 내

포되어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활동하게 될 때야 비로소 여성은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이나 개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

Literaturverzeichnis

- 김홍자(2000): “doch와 denn의 구어텍스트형성에 있어서의 화자전략”, 「언어과학연구 18」, 언어과학회.
- 이선묵(1994): “독일어에 나타난 공손형태의 연구”. 『텍스트언어학2』 텍스트언어학회.
- Coates, J.(ed.)(1994): Language and gender: a reader. Oxford
- DUDEN.(1984): Grammatik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4.Aufl. Hg. von G. Drosdowski. Mannheim/Wien/Zürich.
- Duden(1976-1981): Das große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in sechs Bänden. Hrsg. von Günther Drosdowski.
- Brown, D.(198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 Brown, P. and Levinson, S.(1978):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 Grewendorf, G.(1990): Aspekte der deutschen Syntax. Eine Rektions-Bindungs-Analyse. Tübingen:Narr.120-138.
- Grice, P.(1975): Logik und Konversation, in:Meggel, G.(Hg.)(1979): Handlung, Kommunikation, Bedeutung. Frankfurt a.M. 1975.243-265.
- Hall, E. T.(1983): The Dance of Life: The Other Dimensions of Time. Anchor.
- Hellinger, M.(1990): Kontrastive Feministische Linguistik. München: Max Hueber.
- Helbig, G./Helbig, A.(1990): Lexikon deutscher Modalwörter. Leipzig: Verlag Enzyklopädie.
- Holmes, J.(1984): Heading your bets and sitting on the fence:some evidence for hedges as support structures, Te Reo, 27.
- House, J./Kasper, G.(1981): Politeness Markers in English and German. In: Coulmas, F.157-185.
- Jacobs, J.(1991a): On the semantics of modal particles. In: Abraham, W.

- 1991d, ed.141-162.
- Lakoff, R.(1975):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 Lindner, K.(1991): "Wir sind ja doch alte Bekannte." The use of German *ja* and *doch* as modal particles. In: Abraham, W. 1991d, ed. 163-201.
- Linke, A.(1991): Studienbuch Linguistik, Tübingen.
- Meibauer, J.(1994): Modaler Kontrast und konzeptuelle Verschiebung. Tübingen: Niemeyer.
- Oksaar,E.(1976): Berufsbezeichnungen im heutigen Deutsch. Düsseldorf: Schwann.
- Poynton, C.(ed.)(1990): Language and gender: making the difference. Oxford.
- Rolf, E.(1993): Die Funktionen der Gebrauchstextsorten. Berlin.
- Schoenthal, G.(1985): Sprache und Geschlecht, Deutsche Sprache: 143-185.
- Schlobinski, P.(1987): Stadtsprache Berlin, Berlin.
- Tajfel, H.(1981): Human Groups and Social Categories. Cambridge.
- Tannen, D.(ed.)(1994): Coherence in spoken and written discourse. Norwood.
- Thorne, Barrie (1997): "Geschlecht und Interaktion: Für eine Erweiterung des konzeptuellen Spektrums", In: Braun, F./ Pasero, U. (eds.): Kommunikation von Geschlecht. Pfaffenweiler: 320-335.
- Thurmair, M.(1989): Modalpartikeln und ihre Kombinationen. Tübingen.
- Trömel-Plötz, S.(1980): Sprache, Geschlecht und Macht, Linguistische Berichte 69.
- Werlen, I.(1983): Vermeidungsritual und Höflichkeit. In: Deutsche Sprache II: 193-217.
- Werner, F.(1981): "Gesprächsarbeit und Themenkontrolle". Linguistische Berichte 71.
- Wodak, R.(ed.) (1997): Gender and discourse. London.
- Zimmaman & West(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pp105. Massachusetts.

Zusammenfassung

Positive Sprechhandlung der Frauen im Gesprächstext

Kim, Hong-Ja(Hongik Univ.)

Viele Feministinnen glauben, daß unvollständige Sätze ein typisches Merkmal für einen spezifisch weiblichen Stil sind. An dieser Stelle soll lediglich ein kurzer Überblick über die wesentlichen Erscheinungsformen der geschlechtsspezifischen sprachlichen Variation gegeben werden. Zu den universellen Erscheinungen, die in allen Sprachen einen formalen Ausdruck finden, können die kommunikativen Rollen gehören, die Personen in sprachlichen Interaktionen einnehmen. Im Rahmen der Linguistik sind nicht nur die expliziten und indexikalischen sprachlichen Mittel von Interesse, sondern auch deren kommunikative Signifikanz, da die oberflächensprachliche Realisierung dieser auf die Geschlechtsidentität verweisenden sprachlichen Indikatoren, deren Problematisierung hinsichtlich der Geschlechterdifferenzen signalisiert. Referenzen auf die Berufsidentität hingegen verweisen auf das soziokulturelle Konstrukt der betreffenden Berufsfelder, wobei sie diese jedoch nur spezifizieren. 'Unter thematisch-inhaltlichen Gesichtspunkten haben sich diese Erwartungen erfüllt, da die Teilnehmerinnen zum Teil von sehr persönlichen Erfahrungen berichteten. In dieser Arbeit hat es sich gezeigt, wie sich gesellschaftliche Diskriminierung von Frauen im Sprachgebrauch spiegelt, indem die Frauensprache untersucht wird: Unterschiedliches Gesprächs- und Sprachverhalten von Männern und Frauen. Die sprachliche Gleichbehandlung von Frauen und Männern muß auf der aufrichtigen Erkenntnis von der veränderten sozialen Rolle der Frauen gegründet werden.